

韓國酪農의 發展方向 (하)

건국대학교 축산대 교수 柳 濟 昌

3) 酪農經營의 目標達成 要因分析

(1) 酪農經營成果의 要因分析

酪農經營의 成果를 올리기 위한 關係要因은 대단히 많다. 그러나 가장 깊은 關係가 있는 要因을 中心으로 酪農經營의 收益構造를 圖式化한 것이 <圖2>이다.

상호관계가 있는 經營指標를 線으로 연결했는데, 實線으로 연결된 것은 (+)의 關係이고, 點線으로 연결된 것은 (-)의 關係요인임을 意味하고 있다.

그러나 直接, 間接의 모든 要因을 전부 表示하지는 못하고 있으며 主要한 것을 모아 關係圖를 만든 것이다.

以上の 經營指標의 因果關係를 머리에 넣고 理解하고 <圖2>과 관련시켜 암기할 필요가 있다.

머리속에 이해된 모든 因果關係를 항상 생각하면서 經營活動을 해 나갈때 經營의 目標가 달성될 수 있으며, 問題의 개선이 이룩되어 安定된 經營을 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그런데 酪農經營의 主産物은 牛乳이고 牛乳生産量과 牛乳生産費의 높고 낮음에 따라 經營成敗가 左右된다고 봐도 지나친 表現은 아닐 것이다.

牛乳價格制度는 乳脂粉 3.4% 基準으로 322원에 固定되어 있기 때문에 頭當乳量의 增大如何가 가장 큰 要因임에 틀림없다. 그러므로 酪農所得增大의 最終目標을 達成하기 위한 基本目標은 經産牛 1頭當 乳量을 높이는 길이다.

여기에 젓소가 牛乳를 生産함에 있어서는 또한 수많은 要因이 作用하고 있으므로 그 要因을 分析할 필요가 있다.

(2) 牛乳生産의 要因分析

牛乳가 生産活動을 하는 것은 정상적으로 송아지를 1년에 한마리씩 낳고, 牛乳를 많이 생산하면 그만이다.

① 牛乳生産量에 영향하는 要因

우유의 生産에 影響을 주는 要因은 <圖3>과 같이 많기 때문에 주의해야 된다.

飼料에 관해서는 前述한 바와같이 飼料構造, 營養給與量, 粗飼料의 品質등이 乳量의 決定要因이다.

젓소의 生理的 變化에 따른 飼料給與가 대단히 重要한데 그 4개의 사이클을 보면 ①分娩前後期 ②最高泌乳期 ③體力增強期 ④乾乳期이다.

즉 乾乳期에서 分娩期에 걸쳐 給與할 飼料構造는 乳牛의 健康을 第一目標로 하기 때문에 粗飼料 中心이 되어야 하며, 最高泌乳期에는 良質의 粗飼料는 充分히 濃厚飼料는 適切히 給與해야 된다.

粗飼料의 品質과 乳量과의 密接한 關係가 있다. 즉 粗飼料의 品質은 牛乳生産의 能率을 左右한다. 一般的으로 粗飼料의 品質이 低下하면 濃厚 飼料의 追加給與가 牛乳의 生産에 對應하는 程度가 그에 따라 나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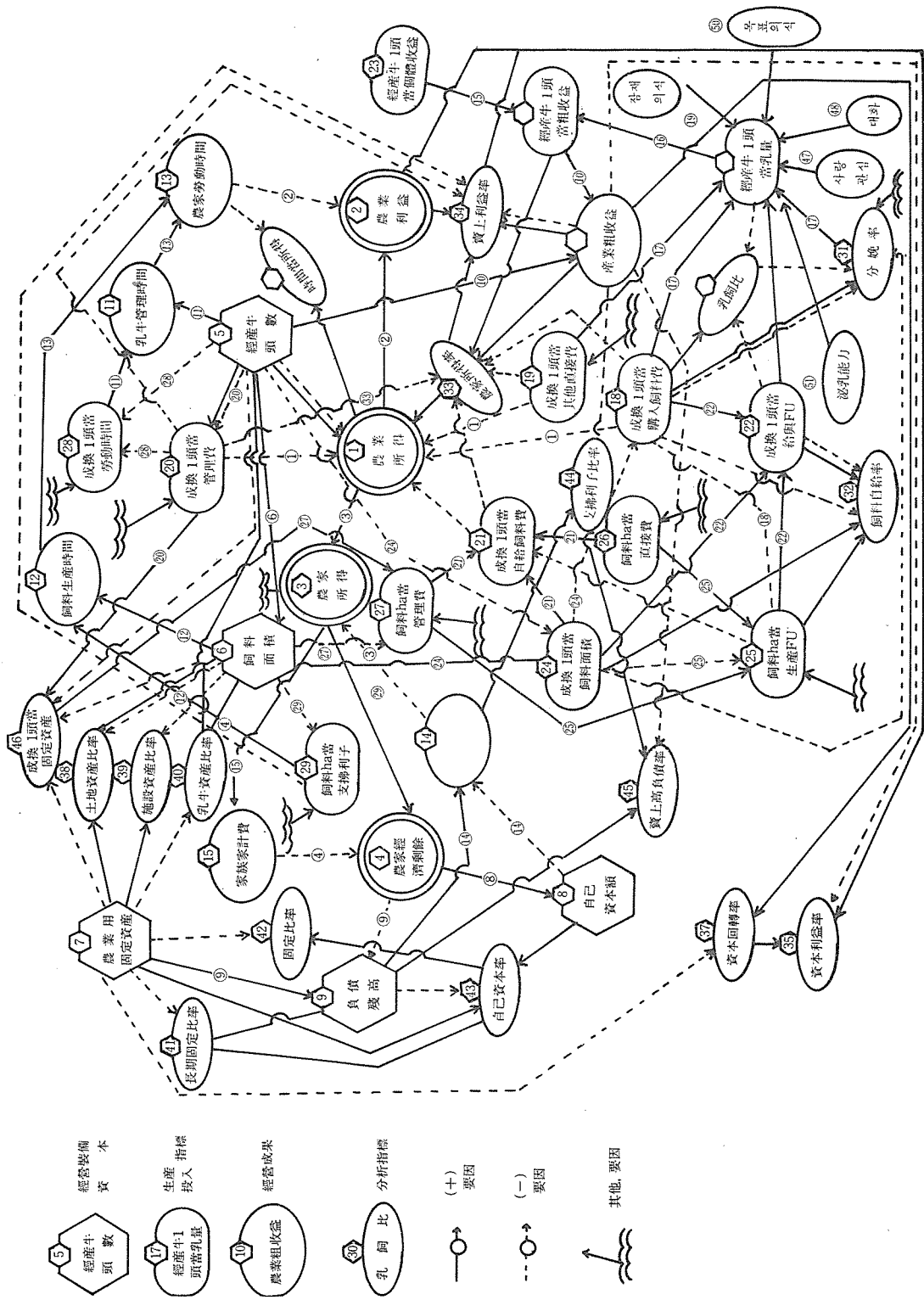
젓소의 能力에 대해서는 우선 經營者가 基本的으로 다음 세가지 條件을 具備할 必要가 있다.

① 能力이 있는 소를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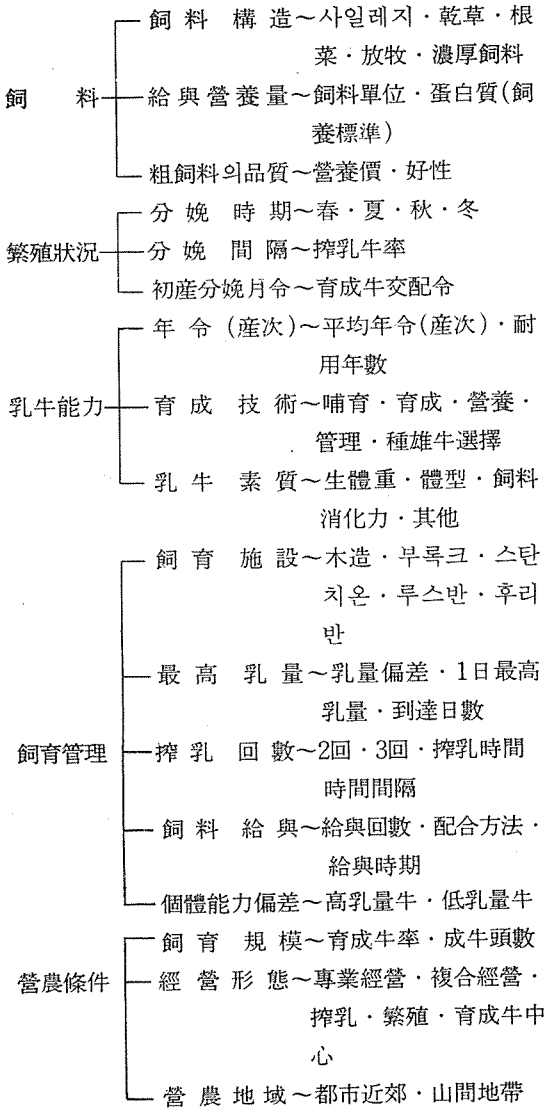
② 能力을 充分히 發揮시킬 수 있도록 젓소를 健康하게 키울 수 있어야 한다.

③ 能力이 높은 「高能力牛」를 만들어 낼 수 있는 技術이 있어야 된다.

〈圖2〉酪農經營의 收益構造



〈圖3〉 産乳量決定의 要因



勿論 優秀한 血統을 選擇하는데 果敢해야 되며 能力이 優秀한 牛群을 만들 목표의식이 강해야 된다.

(2) 損益分岐點 牛乳生産量과 乳量目標

우유를 증산할 수 있는 關係要因을 檢討하는 데에도 牛乳生産에는 限界가 없게 마련이다.

젓소의 遺傳的 形質의 制約으로 더 이상 經營에

所有해야 할 價値가 없다고 判斷될 때에는 果敢히 도태시키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그런데 現在의 經營與件下에서 어느 水準의 乳量이면 도태해야 된다는 明確한 基準이 必要하다.

여기에 損益分岐點 分析이 要求된다. 損益分岐點 牛乳生産量을 産出하는 公式은 다음과 같다.

$$B = \frac{F}{S - V} \quad \text{단, } B = \text{損益分岐點 生産量}$$

V = 單位變動費

S = 單位當 販賣單價

F = 總固定費

예를 들어보면 어느 酪農家의 總固定費가 600만원, 總變動費 1,000만원, 우유kg당 단가 330원, 50,000kg의 우유를 생산했을 경우 損益分岐點 生産量을 산출해 보면 다음과 같다.

$$B = \frac{6,000,000(\text{원})}{330(\text{원}) - 200(\text{원})} = 46,154(\text{kg})$$

全體經營의 側面에서는 最少限 46,154kg의 牛乳가 生産되어야 損失도 利益도 없는 分岐點에 도달하고, 10두의 經産牛였다면 한 마리당 4,675kg 이상을 생산해야 소득이 발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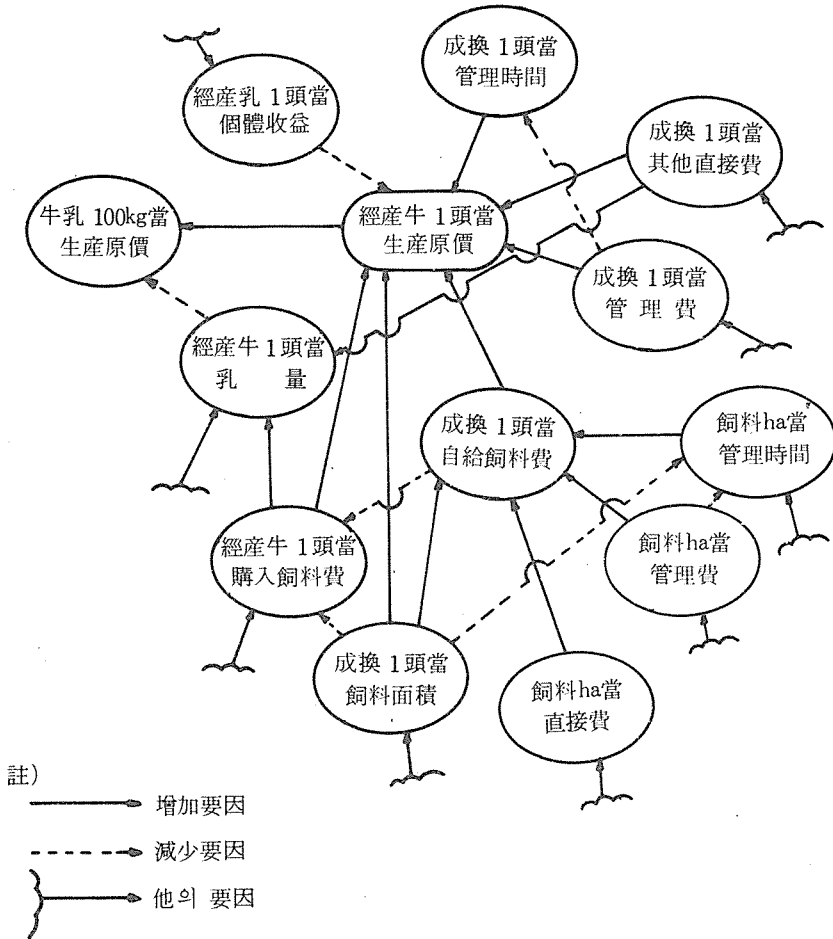
(3) 牛乳生産費 要因分析

粗收益增大을 위한 手段目標로서 頭當 乳量增大와 經營規模의 擴大가 要求되며, 乳量增大와 더불어 牛乳生産費의 節減이 必須的으로 要求되는 바 牛乳生産費의 要因分析은 大端히 重要한 課題이다. 牛乳價格은 一定한 水準으로 固定되어 있기 때문에 kg當 牛乳의 適正利潤을 얻기 위해서는 適正生産費 水準으로 낮춰야 한다.

經營者가 目標로 하는 牛乳生産費를 낮추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要因중에서 主要原價를 構成하는 要素를 分析할 必要가 있다.

〈圖4〉에서 보는 바와같이 經産牛 1頭當 生産原價는 經産牛 1頭當 購入飼料費나 成牛 1頭當 自給飼料費, 管理費의 影響을 크게 받고, 牛乳의 生産原價는 經産牛 1頭當 生産原價에 결정적 影響을 받는다. 그런데 日本의 農畜産物 生産費調査(1979)

〈圖4〉牛乳生産原價의 構造



에 의하면 牛乳生産費에 차지하는 節減目標은 그 比重을 飼料費의 節減에 두는 것이 當然하다고 생각된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濃厚飼料 原料인 옥수수 등의 穀物의 輸入量이 날로 增加하고 있는 오늘날 個別 經營의 立場이든 全體 酪農發展을 위해서도 飼料費 節減 方案이 本格的으로 研究 檢討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 牛乳生産額과 購入飼料費를 가지고 乳飼比를 算定하여 그 經營內에서의 飼料費 問題를 統制 改善하는데 利用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牛乳生産에 차지하는 飼料費의 性格과 位置, 특히 그 節約을 測定하려면 어떻게 할까? 더욱이 乳

代에 차지하는 購入飼料費(濃厚飼料費)의 比率, 즉 乳飼比는 어느 程度가 最適일가에 대해서 약간의 資料로부터 考察한 바를 要約하면

① 乳牛의 能力, 飼養規模에 따라 良質의 自給飼料의 量産이 얻어진다는가, 廉價로 確保가 가능하다면 牛乳의 生産費를 크게 節減시킬 수 있다.

② 乳飼比가 낮다고 하는 것은 乳飼比의 分子가 작거나, 分母가 크거나 어느 측에 의해서 가능하나, 반대로 分母가 작고 分子가 커지면 乳飼比는 높아진다.

一般的으로 前者는 經營에 有利하고, 後者는 不利하다. 分母는 乳代(乳價×乳量)이고, 이것은 乳價가 높고 乳量이 많으면 必然的으로 乳代가 높아

진다. 分子는 購入飼料費(單價×購入量)이고, 이것은 주로 自給飼料의 大量生産과 良質如否에 관련하게 된다.

여기서 分母와 分子의 關係 즉 適正한 乳飼比를 각각의 農家의 牛群의 産乳能力, 飼料價格 특히 購入飼料의 價格 등 相對的인 均衡 위에서 酪農經營上의 觀點에서 探究해야 될 것이다.

③ 어느 37頭의 搾乳牛를 사양하는 酪農經營의 實例에서 平均産乳量 8,400kg, 乳脂率 3.78%, 乳飼比 18% 前後의 資料가 있는데, 牛群의 1泌乳期當(305日 檢定) 産乳量이 8,000kg 정도로서 乳飼比가 20% 以下라고 하는 것은 自給飼料가 좋지 않으면 달성키 어려운 産乳量이다. 다만 乳量만이 높은 것이 아니고 乳脂率도 3.4~4.2%, SNF含量도 8.5% 前後의 高品質의 産乳量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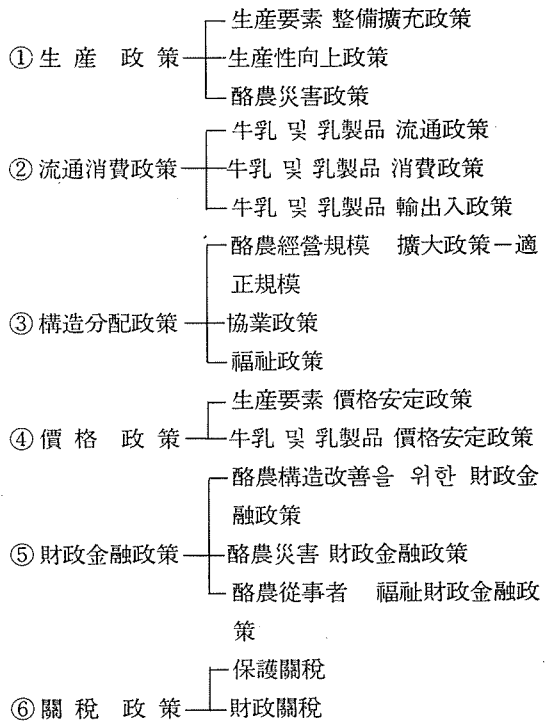
3. 酪農政策의 合理化

우리나라 낙농산업발전을 위한 과제로서 集乳一元化와 檢査公營化, 季節別, 等級別差等價格制, 牛乳消費弘報問題, 粗飼料增産政策, 乳製品輸出入政策, 酪農經營의 適正規模問題, 酪農財政金融政策, 飼料및 施設抑制의 開設등 許多히 많다.

우리나라의 酪農經營者가 先進國水準의 能力을 具備하고, 나아가서 政策의 合理化가 이뤄져야만이 酪農의 安定的 발전이 기대된다.

낙농정책의 基本목표가 낙농가의 적정소득을 보장하고, 낙농生産물의 供給안정을 유지하는데 있다.

〈圖5〉 酪農政策의 基本方向



니만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각 분야의 合理化인 政策樹立이 要求된다.

〈圖5〉와같이 生産, 流通消費, 構造分配, 價格, 財政金融, 關稅政策이 현실적이고 合理的으로 시행될 때 우리나라 酪農産業은 선진국의 낙농업 수준으로 계속 발전될 것을 確信하는 바이다.

힘찬도약!

굳건한 단결!

영원한 전진!